

2024. 2. 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1쪽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오부자	02-2133-5028
담당자	김지현	02-2133-5030

1원씩 송금하며 협박, 중고거래 앱으로 접근...서울시, 스톡킹 추가 피해 14건 막아

- 전담조직 출범 4개월 간 민간경호, 이주, 법률·심리 등 136명에 678건 지원
- 금융·중고거래 앱 이용 등 신종 스톡킹... 재신고 및 안전조치로 추가 피해 방지
- 전국 최초 '서울시 스톡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운영...2.1.(목) 개관
- 긴급주거시설 2→3개호, 민간경호 20→60명, 이주비 확대 지원해 피해자 지원 강화

A(20대)는 전 연인이었던 B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톡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가 112에 신고하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 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B가 이런 식으로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톡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A에게 가해자를 재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우선 긴급 주거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한 뒤 이주비를 지원해 신속히 거주 이전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혼자서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A에게 변호사도 연계 지원했다.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톡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작년 9월 출범한 '스톡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톡킹 피해자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 피해지원(총 678건)은 상담 및 사례관리 556건, 심리·치유지원 38건, 법률·소송지원 32건, 의료지원 13건,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 등이었다.
- 서울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작년 9월 출범하고(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경찰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 ▲심리 ▲의료)을 지원한다.
-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 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 또한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 이 밖에도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
 - ‘간밤에 별일 없었는지?’ 묻는 상담원에게 가해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얘기에 재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 또한, 가해자의 갑작스런 출소로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우선 긴급하게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꼼꼼한 사례관리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렇듯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차단하자 가해자가 접근금지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자 신종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배달을 온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스토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 외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순이었고, 감금, 강간 피해도 9.8%(7건)에 달했다.

<전국 최초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운영…2.1.(목) 개관>

- 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시범 운영해왔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을 2월1일(목)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스토킹 피해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력, 살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 시는 개관 이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법률, 심리, 의료, 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23년 20명)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 '23년 서울시 스토킹 보호시설에서 총 88명의 피해자를 보호했고, 심리·상담, 수사·법률, 의료, 자립지원 등 총 3,600건을 지원했다.

□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3년 20명→'24년 60명)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 23년도에 실시한 민간경호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원이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고, '민간경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용자(67%)가 많았다.



□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3년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373명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였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지원사례

※ 지원사례 1 : 잠정조치 중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한 사례

#.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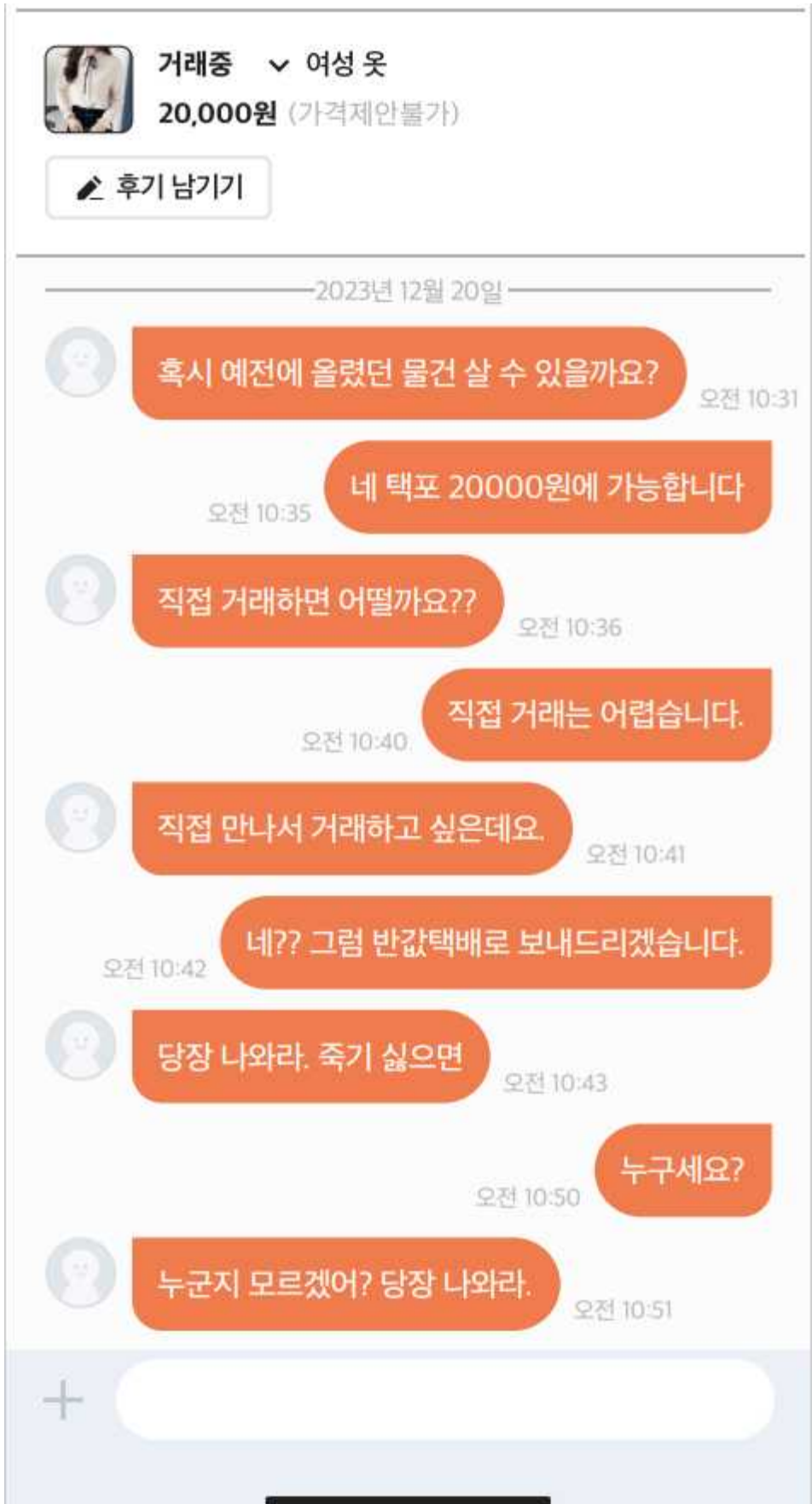
- 스토킹유형: (가)접근, (다)통신매체에 의한 지속적 연락, (기타)성폭행, 불법촬영
- 피해자 연령 : 30대(여성)
- 가해자와의 관계 : 전연인

A는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있었으며, 가해자는 A가 이별 의사를 밝힌 후에도 통신매체를 통한 욕설 등 스토킹을 지속함. 두려움을 느낀 A는 112신고 하였고, 잠정조치 결정되어 보호조치 중에 있었음. 이후 A가 모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가해자는 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앱을 통해 동네 설정 및 비슷한 아이디를 검색하여 A에게 중고거래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함.

-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연계, 전문가 심리상담, 법률지원

A는 초기상담 시, 반복되는 가해행위로 인한 무력감이 높은 상태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자발적인 발화량이 거의 없었음. 이에 A의 피해 상황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여러 감정에 대해 공감적 지지를 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 범죄 피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 중이라고 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동시에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함. 또한 혼자서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여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연계함.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A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 중에 있으며, 피해지원관과 상담 시 자기표현이 저조했던 A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만족도를 표현함.

(지원사례 1) 대화 예시



※ 지원사례 2 : 금융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스토킹한 사례

#. 사건 개요

- 스토킹유형: (가)접근, (다)통신매체에 의한 지속적 연락, (기타)교제폭력
- 피해자 연령 : 20대(여성)
- 가해자와의 관계 : 전연인

피해자 B는 폭력성이 높은 가해자로부터 폭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에 도움 요청하지 못함. 가해자는 B가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B에게 1원씩 송금하며 ‘집 앞이니 당장 나오라’는 협박을 함. 상담원은 상담 중 재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주어 재신고가 이뤄짐

- 지원내용: 이주비 지원, 법률 지원

B는 초기상담 시, “예전에도 제가 연락을 바로 안 받으면 집착하면서 전화해서 욕을 하고... 술 먹고 저를 때린 적도 있어서...”라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가해자 접근을 피하기 위해 이직까지 하였으나,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올까봐 불안감이 높은 상태였음. B는 긴급 거주시설 입소 중에 거주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거주지 이전비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진행하여 1주 이내에 거주지 이전을 완료하여 안전을 확보함.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사업단의 법률지원단을 연계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 대한 촘촘한 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음.

(지원사례 2) 대화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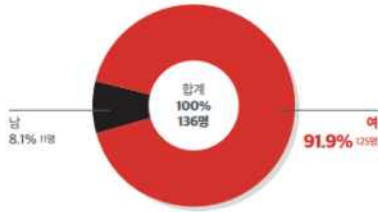
← 이체내역		
	전화받아 받기 완료	1원 23/12/20
	전화안받아 받기 완료	1원 23/12/20
	지금간다 받기 완료	1원 23/12/20
	집앞이야 받기 완료	1원 23/12/20
	당장나와 받기 완료	1원 23/12/20
	내손에 받기 완료	1원 23/12/20
	죽고싶어 받기 완료	1원 23/12/20
	지금안나오면 받기 완료	1원 23/12/20
	불질러버린다 받기 완료	1원 23/12/20

〈붙임 2〉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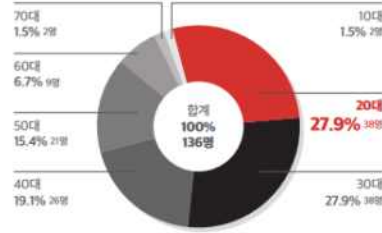
서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운영실적

지원 대상 총 136명 | 건수 총 678건
원스톱 118명, 654건 | 민간경호 18명, 2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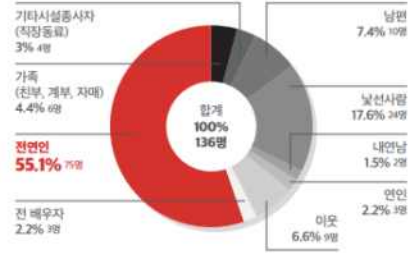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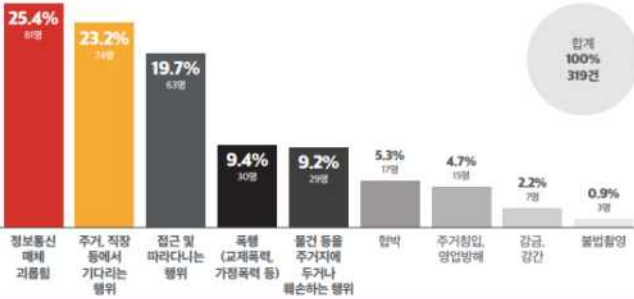
연령



가해자 관계



피해 유형



지원내용

중복건수 포함



〈붙임 3〉 서울시 스토킹 피해 원스톱지원 협약식 및 현장간담회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간담회」 ('22.9.26.)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3.9.14.)